

#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A Study on the Making Process of the Goryeo Jaejo-Daejanggyeong

송 일 기 (Song, Il-Gie)\*\*

## ◁ 목 차 ▷

1. 서 론	4.1 사원의 출판기능
2. 대장도감의 성격과 운영양상	4.2 수행 업무의 양상
2.1 존치시기와 성격 문제	5. 고려대장경의 조성과정
2.2 수행 업무의 양상	5.1 조판 준비기
2.3 선원사와의 관계	5.2 경판 조판기
3. 분사도감의 역할과 운영양상	5.3 경판 이운기
3.1 분사도감의 존치 문제	5.4 불경 인출기
3.2 수행 업무의 양상	6. 결 론
4. 사원의 출판기능과 운영양상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주체와 조성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재조본의 조성에는 중앙에 대장경 조성을 총괄하는 대장도감을 두고 지방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실제적인 판각과 인경 작업에는 당시의 대표적 사원에서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대장경의 조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조판준비기·경판조판기·경판이운기·불경인출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각 단계마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1251년에 전체 공정을 불과 16년 만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종래 연구에서 권말에 새겨져 있는 ‘造成記’를 ‘刊記’로 이해함으로써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을 ‘板刻處’로 인식하여 오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권말에 새겨져 있는 조성기를 사찰본과 같이 간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要語: 고려대장경, 재조본, 대장도감, 분사도감, 대장경판당, 선원사, 강화도

\* 이 글은 강화군 주최로 2011년 8월 10일에 <고려대장경 조성파 강화도>라는 주제로 강화 역사박물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1년 8월 31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8일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comprehensively the process and authorities of making the *Goryeo Jaejo-Daejanggyeong*(고려재조대장경). To remake Daejanggyeong, Daejangdogam(大藏都監), the central supervisory government office, and Boonsadogam(分司都監), local offices, were established, and the actual operations of engraving and printing were performed in the major temples at that time. Thus the work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In this research, writer divided the whole process of making Daejanggyeong into 4 specific stages: pre-engraving stage, engraving stage, gathering panel stage, and printing stage. The respective stages were operated s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hat the huge project could be completed in 1251. It took just 16 years to finish.

Joseonggi(造成記 writings on making) engraved at the end of it has been misunderstood as Gangi(刊記 writings on printing) in the previous researches. So Daejangdogam and Boonsadogam were also misunderstood as the places of engraving. However this research pointed out that since the Goryeo Daejanggyeong was made nationwide, its Joseonggi cannot be considered as Gangi like the ones in temple versions.

Key words: *Koryo Daejanggyeong*, Jaejobon, Daejangdogam, Boonsadogam, Daejanggyeong Pandang, Seonwonsa, Gangwhado

## 1. 서론

현재 합천 해인사 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은 1237년에서 1248년 사이의 불과 12년에 걸쳐 조성되었다.<sup>1)</sup> 초조본이 76년 동안에 걸쳐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그 보다 많은 불경을 하나하나 교정하여 조성한 것은 무엇보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그 해답이 있을 듯하다.

고려는 이미 2세기 전에 대규모의 초조본과 교장본을 조성한 실무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조본의 조성에 당시의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추진기관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사이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주어짐으로써 하나의 목표 즉 ‘대장경 복원 조성’이라는 대명제를 신속하고도 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재조본<sup>2)</sup>의 조성에는 대장도감과 분사도감, 그리고 지방의 중심 사원이 참여한 유기적인 운영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수행되었을 것으로 그려진다. 즉 중앙의 대장도감과 지방의 분사도감에서 정책적 지원을 맡고, 분사도감 산하에 해당 지역의 중요 사원이 참여하여 실제적인 작업을 주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당시 피난 수도인 江都에 왕실 및 관료의 식솔들이 대거 피난 온 상황에서 여기에 수만 명에 이르는 작업 인력이 운집하여 특정 기간(1236-1251년)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려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백여 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운영 주체의 성격이나 판각처 문제, 그리고 수록 불경의 범주와 경판의 보관

1) 이 글은 대장경의 전체적인 조성과정을 조망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造成’이란 단어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저본의 목록 및 교정 작업을 비롯하여 판하본 작성, 연판과 조판, 그리고 인경에 이르는 일련의 수행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자에 따라 초조판이 2차에 걸쳐 雕造되었다 하여 현재 합천 해인사판만대장경을 3雕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필자는 이 글에서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따라 再雕로 이른다.

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으나 연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sup>3)</sup> 이러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고려대장경 조성과 관련된 문헌자료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문헌자료로는 『고려사』 열전의 최충헌 조와 고종 38년(1251) 9월 25일 기사, 그리고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이규보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문헌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합천 해인사 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경판의 印經本을 대상으로 조성의 흔적을 추적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상당한 결실을 보이고 있다.<sup>4)</sup> 그러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경본은 대부분 근세에 후쇄한 판본으로, 초쇄본과는 달리 여기에는 후대 보판한 중복판 등이 혼재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단서는 난외에 기재되어 있어 판독이 곤란하기 때문에 차체에 경판 자체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sup>5)</sup>

그런데 재조판에는 초조판과 달리 불경의 권말에 이른바 ‘刊記’가 불규칙적으로 새겨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이를 경판을 판각한 곳으로 이해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조판은 국가적 사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찰에서 한 두 종의 불서를 開板하고 새긴 간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찰본은 대부분 그 사찰에서 판각도 하고 인출하였기 때문에 판각장소와 발행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재조판은 대장도감이 조성의 주체가

3) 최영호, “江華經板 高麗大藏經의 조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석당논총』 44(2009). 참고.

4) 근래 고려대장경의 연구는 초기의 사료 중심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간기와 각수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팔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일부에 무리한 해석이 보이고 있으나, 김윤곤을 비롯하여 최영호와 최연주의 각수 분석을 통해 지방의 여러 사원의 참여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다. 최근 그 동안 이른 최연주와 최영호의 연구 성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2006);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부산: 세종출판사, 2009);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8)].

5) 최근 해인사에서는 <사이버장경판전>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 경판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는 데 매우 참고가 되고 있다.

되어 분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造成記’로 보아야 새로운 시각에서 고려대장경의 조성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생각해 본 4단계 조성과정을 중심으로 이미 선행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밝혀 놓은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업무와 운영 양상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입장에서 필자의 좁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 2. 대장도감의 성격과 운영양상

### 2.1 존치시기와 성격 문제

고려시대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괄 기구로 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초조본 이나 재조본의 조성에 ‘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는 당시의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재조본의 경우 경판 자체에 ‘大藏都監’과 ‘分司大藏都監’이란 조성 주체를 밝히고 있어 대장도감이 조성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초기 11세기에 조성된 초조본의 경우에 비록 재조본과 같은 조성기는 없으나 대장도감에서 주관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의천의 교장본은 흥왕사에 교장사를 두었다는 기록으로 교장도감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재조본의 조성에 막연히 도감이 주도하였다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모두 대장도감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고려사』 고종 38년(1251) 9월조의 ‘立都監’과 열전 최충현 조의 ‘別立都監’, 그리고 이규보의 기고문(祈告文) 중에 ‘已畧置尙當官司’라 표현한 문헌 기록이 보이고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이들 기록을 대장경관의 조성기(造成記)와 관련지어 ‘대장도감’이 1233년·1236년·1237년에 새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모두 대장도감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다. 먼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기록은 1237년에 이규보가 지은 <기고문>에 보이는 ‘已署置旬當官司’이다. 학계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旬當官司’는 고유 기관을 지칭하지 않은 일반적인 ‘담당관청’ 정도로 이해하여 이를 대장도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장도감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별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6)</sup> 또한 그 시점을 ‘已’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123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종 38년(1251)의 기사에 보이는 ‘立都監’은 비록 직접 대장도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大藏]都監’을 축약해서 생략한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러나 고종 42년(1255)에 내린 조서에는 ‘別立都監’으로 기록되어 있어 1251년의 기사에 ‘別’자가 추가되어 있는 형식이다.<sup>8)</sup> 이로부터 대장도감이 아닌 별도의 도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성기에 보이는 분사도감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대장경 경판의 권말에 새겨져 있는 조성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分司大藏都監’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감은 특수한 일로 필요할 때 설치하였다가 그 일이 마무리되면 폐지하는 한시적인 임시기구 또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

- 
- 6) 旬當의 사전적 해설은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함”으로 되어 있어 ‘旬當官司’는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는 관리 또는 관청” 정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해설에는 “寺中の 庶務를 맡은 소임(職)” 또는 “승직 명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旬當’이란 용어는 중국 송나라와 거란의 불교전적 등에 보이고 있다. 송판의 복각본인 <묘법연화경>에 ‘秀州雲間善住寶閣淨人 旣儒旬當’이란 기록이 보이고, 거란 교장본인 <釋摩訶衍論通贊疏>에는 권말의 조성기 다음 행에 조성자의 명단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맨 앞에 ‘殿主講經覺慧大德臣沙門 行安旬當’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다. 특히 거란 교장본에는 ‘行安 旬當’에 이어 ‘方矩 校勘’, ‘志延 校勘’, ‘資陸 提點’ 등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어 교장 조성의 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山西省文物局,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306). 한편 초조본 <法苑珠林> 권82의 말미 조성기에도 ‘旬當印經院’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호림박물관, 2011), 251), 이와 동일한 기록이 趙成金藏 <法苑珠林> 권1의 조성기에도 보인다. 따라서 불교전적을 간행하는데 맡은 소임 중 하나로 보이므로 ‘구당관사’는 불경의 간행을 맡은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겠다.
- 7) 『高麗史』卷24, 世家 卷24 高宗 38(1251)年 9月 25日. “壬午 幸城西門外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更願, 立都監, 十六年而功畢.”
- 8) 『高麗史』卷129 列傳 卷42 <崔家獻>. “別立都監, 傾納私財, 彫板幾半, 福利邦家, 功業難忘. 嗣子侍中 沆, 遙追家業, 匡君制難, 大藏經板, 施財督役, 告成慶讚, 中外受福.”

나 한번 설치된 기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 설치된 대장도감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이다. 비록 대장도감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충선왕 후 원년<sup>9)</sup> 3월에 쌀 300석을 ‘大藏都監 禪源社’에 나누어 주라는 왕의 전지가 있었다.<sup>10)</sup> 이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대장도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되며, 또한 학계에서는 고려대장경 조성이 완료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대장도감이 존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장도감은 이보다 더 오래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보이고 있다. 그것도 놀랍게도 조선왕조가 건국된 직후라는 사실이다. 조선왕조 태조실록에 도당(都堂)에서 대장도감(大藏都監)의 폐지를 논의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으나,<sup>11)</sup> 그마저 즉각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듯하다.<sup>12)</sup> 이와 같이 비록 대장도감이 설치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조선 태조 초기까지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장도감은 조선 태조 때까지 폐지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때 설치되었을 것인가. 판각 조성기가 새겨져 있는 대장경판이 처음으로 산출된 시기는 1237년이다. 만약에 재조본을 조성하면서 대장도감을 설치했다면, 그것은 1237년 이전이 될 것이다. 고려대장경 조성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장도감은 1237년 이전에 설치되어 조선 초기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9) ‘後元年’을 서기로 환산한 연대를 충선왕 원년인 1309년 또는 충숙왕 원년인 1313년, 복위 원년인 1332년과 충혜왕 복위 원년인 1340년으로 보고 있다. 고려 왕실은 몽고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충렬왕 이후 왕권은 크게 실추되었으며, 재위기간에도 원나라에 머물면서 傳旨로 통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충선왕은 부왕인 충렬왕과 관계가 좋지 않아 1298년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한 사실이 있었으나 재위 8개월만에 다시 왕위가 충렬왕으로 넘어갔다. 그 후 부자간의 암투가 계속되다가 1308년 충렬왕이 죽자 원나라에서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復位’한 사실이 있어 ‘後元年’은 바로 1309년에 해당된다 하겠다. 충선왕은 복위하자 유일하게 典農司를 새로 설치하여 조세를 관리한 사실도 보이고 있다.

10) 『高麗史』 卷78, 志 卷32 食貨 1 <田制>. “後元年三月 傳旨曰, 典農司所收, 諸寺社及有卷功臣田租, 皆還給, 其餘田租, 移入龍門倉, 以米三百石, 分賜大藏都監禪源社.”

11) 『태조실록』 1년(1392) 8월 2일. “도당(都堂)에서 대장도감(大藏都監)을 폐지하기를 청하였다.”

12) 『태조실록』 1년(1392) 11월 25일. “도평의사사에서 감찰(監察)·봉례(奉禮)·삼관(三館)·삼도감(三都監)·내시(內侍)·다방(茶房) 등의 관직에 신참(新參)이 잠범(雜泛)하는 폐단을 없애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대장도감의 존치했던 지역과 기구조직상에 약간의 논란이 보이고 있다. 대장도감이 비록 임시적 한시 기구일지라도 당연히 당시의 수도였던 강화경 궁궐 안에 위치했을 것이다. 아울러 대장경판당과 관련하여 선원사와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상하 관계로 보면 선원사는 오히려 판당의 경판과 인경을 관장하는 대장도감 산하의 직속 또는 부속 기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선원사는 경판의 관리를 위해 대장도감이 위치한 궁궐과 가까운 서문 밖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충선왕이 내린 쌀 300석은 대장도감 산하의 선원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는 앞의 기사에 전농사가 여러 사원에서 거둔 세금을 모두 환급해 주라는 왕명으로 보아 대장도감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장도감 산하에는 지방의 부목 단위를 중심으로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조성 사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고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조선시대 세조가 설치한 간경도감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간경도감에서는 국역 및 한문불경을 포함하여 대략 30여종의 불경을 조판하였는데, 이때 지방의 행정조직을 활용한 바 있다. 이는 고려의 대장도감의 운영 사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대장도감은 신속히 대장경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산하에 지방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분사도감을 설치하였다. 지방에 설치된 분사도감은 이미 조판 경험이 있는 해당 지역의 사원에 작업분량을 분담함으로써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국난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2년 만의 단기간에 『대장목록』에 입장되어 있는 경전을 모두 조판해 냈다.

13) 간경사업을 간경도감 본사만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의 대장도감 운영을 본떠서 지방의 府牧에 分司를 두고 분담케 하였다(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142). 당시 간경도감판은 상주목, 안동부, 진주부, 진주목, 남원부, 그리고 최근에 광주목이 참여하여 조판한 사실이 알려졌다.

## 2.2 수행 업무의 양상

고려대장경 조성에는 대장도감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비록 기록상에는 대장도감의 존치 과정이 명확치 않으나 경판의 조성기에는 명시되어 있다. 대장도감은 임시 피난 수도인 강화경에 위치하면서 산하의 지방 행정조직에 분사도감을 배치하여 조성 작업을 총괄하였다. 이러한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조판을 위해 오교도승통인 수기(守其)<sup>14)</sup>를 중심으로 초조본에 수록되어 있던 『대장목록』을 보완하고,<sup>15)</sup> 보완된 목록에 의거하여 전체 불경을 분담 교감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기법사는 『교정별록』을 편찬하여 재조본에 입장하는 공헌을 하였다.

교정이 완료된 불경은 초조본을 저본으로 조판용 판하본을 마련하여 지방의 분사도감에 분배해 주었다. 판하본의 경우 내용이 많이 교정되지 않은 불경은 초조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복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삼분화엄경 등 일부 불경은 이전에 국내 사찰에서 유통되었던 판본을 채택하여 권수의 함차와 권말의 조성기를 수정하여 조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14) 守其의 전기에 대해서는 오용섭의 글이 비교적 상세하여 참고가 된다(오용섭, “八萬大藏經의 造成과 江華,” 『인천학연구』 1, 399-403). 다만 보한집에 보이는 ‘守眞’은 ‘守其’의 오자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국보 20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주분화엄경 권6의 권수의 경제 아래에 『海東沙門/守其藏本』으로 墨印된 印文에 ‘守其’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수기의 장서인을 높게 평가하여 국보로 지정되었다면, 이 책은 한때 수기가 소유했던 불경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守其’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면 한다.

15) 학계에서는 재조본 『대장목록』의 ‘更’함의 위치에 ‘大藏目錄三卷’이 기재되어 있어 대체로 초조본에 『대장목록』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현존하는 재조본의 『대장목록』 제목 아래 ‘函次’ 표시가 없으며, 판식의 특징을 보면 정장에 수록된 다른 불경과는 상이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불경과는 달리 판면의 중앙에 판심이 보이고 그 안의 상하혹어미 아래에 판심제와 권·장차, 그리고 함차 ‘更’이 별도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舊大藏目錄>의 복각이라면 과연 13세기 이후의 호점장이나 선장본에서 보이는 판심이 11세기 권자본 불경의 판식 상에 등장하였을까. 물론 재조본의 보유판에는 판심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혹 『대장목록』부터 추가 편입한 것은 아닌가한다. 재조본 『대장목록』은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단순한 <板刻用目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된 여러 목록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張愛順 외,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89).

지방의 분사도감에 분배된 조판용 판하본은 다시 조판 능력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요 사원에 할당하여 판각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원에서 조판된 경판이 일정량에 이르면 다시 분사도감의 지휘 아래 강화경의 판당으로 이운하여 후일의 인경(印經)을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이다. 판당의 경판 관리와 인경 작업은 대장도감의 부속 사원인 선원사에서 주로 관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조판이 어느 정도 추진되자 인경에 필요한 종이를 분사도감을 통해 공출하여 선원사에 보관하였을 것이다.

## 2.3 선원사와의 관계

선원사는 고려대장경판이 집중적으로 조판되었던 직후 1245년에 창건되었으나, 현재는 폐사된 사찰이다. 선원사는 창건 초기에 최씨 정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최씨 정권이 붕괴된 이후로도 고려 말기까지 충감(沖鑑)과 혼수(混僞) 등 조계종의 중요 스님이 거쳐했던 사찰이었다.<sup>17)</sup> 한편으로 충렬왕 때에는 갑작스런 병란으로 선대의 실록을 모두 선원사로 옮겨둔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판의 보존 기능뿐만 아니라 후에는 사고(史庫)의 보존 기능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 사찰의 건립 성격과 대장도감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장도감과 선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최씨무인정권의 원찰인 선원사에 대장도감이 설치되었다.

둘째, 대장경판당이 선원사에 설치되었으므로 대장도감과 밀접한 관계이다.

---

16) 필자는 최근 재조본과 동일본으로 보이는 <진본 화엄경 권53>을 발견하였는데, 재조본의 함차인 ‘道’와 다른 ‘宙’로 기재되어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유부현교수는 삼본화엄경만의 독자적인 함차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질이 竹紙로 판정된 송판계통으로 보이는 <진본 화엄경 권36>도 실사한 바 있는데, 판본의 서체나 행자수 등 판식의 특징과 권말의 音義가 재조본 및 해인사 사간본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만일 권36이 송본 또는 원본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조본 화엄경은 국내전본인 사찰본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주장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어서 이 글에서 소개한다.

17) 황인규, “고려 후기 禪源寺의 創建과 禪僧들,” 『慶州史學』 제21집. 참고.

셋째, 대장도감과 선원사는 별개의 기관이며, 오히려 수선사 다음으로 제2의 선종사찰이다.

이와 같이 대장도감과 선원사와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사에 판당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대장도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원사는 경관이 처음으로 조판된 1237년에 비해 다소 늦은 1245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진명국사(眞明國師)의 비문에 보이고 있다. 이 비문에는 을사년에 진양공이 선원사를 새로 짓고 크게 낙성회를 벌이는데, 이때 진명국사를 초청하여 그 법석을 지도하게 하였다하여 을사년 즉 1245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따라서 대장도감의 설치시기와는 8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1245년은 선원사가 완공된 해이므로 실제로 공사가 착공된 시기는 사원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려 문종의 진전사원이면서 의천이 교장도감을 설치하였던 흥왕사의 경우 12년 동안 조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9)</sup> 강도의 피난지에서 그와 버금가는 규모로 지어진 선원사도 대략 7-8년 동안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선원사는 대장경의 조성이 착수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착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원사 또한 대장도감 설치 초기에 이미 대장경판당을 수호하는 사찰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sup>21)</sup> 이러한 관점에서 선원사는 고려 궁궐이 조영된 지역과 매우 근접한 지역에 건립되어 대장도감의 부속 사원으로 판당을 관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선원사 내에 판당이 준공된 이후 지방의 여러 분사도감 산하의 사원에서 판각된 경판을 순차적으로 이곳으로 이운하여 보존하였다. 지방 사원에서 조판된 경판은 대체로 조판이 완료된 1248년까지는 모두

18) 『止浦先生文集』卷3 <臥龍山慈雲寺王師贈諡眞明國師碑銘 并序>. “乙巳歲，晉陽公創禪源社，大張落成會，請師主盟。明年丙午，師領精鍊衲子二百，赴京師入禪源。”

19)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서울: 民族社, 1998), 50.

20) 『拙稿千百』卷1 <禪源寺齋僧記>. “선원사(禪源寺)는 우리나라 제2의 총림(叢林)으로서 그 식구가 언제나 수천 수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여 규모의 방대함을 짐작하게 한다.

21) 조경철, “강화 선원사와 대장경판당,”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학술회의논문집』(강화군, 2011. 8), 184-185.

이곳으로 이운되어 인경에 대비하였다. 비록 작업 공정상 경판은 여러 곳에서 분담 조판되었으나, 인경만은 경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경판의 조성기를 분석한 결과 다권본 불경의 경우 여러 사원으로 분담하여 판각되었기 때문에 인경을 위해 어느 곳이든지 한 장소로 모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인데, 그곳은 당연히 판당이 설치되어 있는 선원사이다. 이처럼 선원사는 대장도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장경판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왕실의 선대 실록을 봉안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sup>22)</sup> 그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선원사에 경비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장경의 조성 사업이 완료 된지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나 국가에서 쌀 300석을 하사한 사례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선 태조 7년(1398)에 강화도 판당의 경판이 합천 해인사의 판전으로 이운되기 이전까지는 이곳 선원사의 판당에 보존되었던 것이다.<sup>23)</sup> 그래서 경판의 출력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태조실록에 강화도 선원사로부터 운반해 온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24)</sup> 조선 초기 대장경판이 해인사로 이운된 이후 선원사는 급속히 쇠퇴되어 임난을 거치면서 폐사된 이후에는 장원서(掌苑署) 과원(果苑)으로 변하고 말았다.<sup>25)</sup>

22) 『高麗史』 卷30, 世家 卷30 忠烈王 18年(1291) 1月 24日(丁巳). “移置先代實錄于禪源寺.”

23) 팔만대장경판이 합천 가야산 해운사로 이운된 시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자료가 출현하였다. 고려 말 학자 이색의 문집인 『牧隱詩稿』 권28에 <대장경(大藏經)을 인출(印出)하러 해인사(海印寺)로 떠나는 나옹(懶翁)의 제자를 보내면서>라는 시에 “가야산 해인사로 대장경 전체를 찍으러 떠나면서(伽倻海印印全藏)”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일부에서는 이운시기와 경판의 분치 문제 등에 대해 고심해 왔는데, 최근 박상국에 의해 일본의 대국대학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재조본이 바로 이색의 인경본이라는 전말이 공개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송인의 『神勒寺大藏閣記』에 “경신년(1380) 2월부터 모연하여 다음해 4월에 인경을 마치고 장황하고 10월에 覺珠가 經題를 金泥로 쓴” 사실이 보이는데, 특히 현재 대국본의 경제가 금니로 쓰여 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일본대국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목록, 439-440 참고).

24) 『태조실록』 14권, 7년(1398) 5월 10일(병진). “임금이 용산강(龍山江)에 행차하였다. 대장경(大藏經) 경판(經板)을 강화(江華)의 선원사(禪源寺)로부터 운반하였다.”

2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2권 경기(京畿) -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조. “선원사(禪源寺) 옛터는 부의 남쪽 8리에 있는데, 지금은 장원서(掌苑署) 과원(果苑)이 되었다.”

### 3. 분사도감의 역할과 운영양상

#### 3.1 분사도감의 존치 문제

분사도감과 대장도감과의 관계는 행정조직 상으로 보면 지방의 부목에 하위 조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단순해 보이나, 그 설치시기나 운영양상, 그리고 조판 시기와 조판분량 등의 문제와 여기에 최씨정권의 개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관계가 그리 단순치만은 않다. 더욱이 분사대장도감의 존재는 경관의 말미에 새겨져 있는 조성기에 의해 입증되고 있을 뿐, 정작 기록상에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로는 다만 『고려사』 열전의 최항 기사에 도감설치에 관한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 ‘別立都監’이란 기록을 음미해보면 분사도감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26)</sup>

최충현의 전기에는 최이가 별도로 도감을 세우고 여기에 사재를 내어 경관의 절반을 조판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인정권의 수장인 최이가 경관의 절반을 조판할 만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내용인데, 과연 경관의 절반을 조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 감히 상상도 되지 않으나 막대한 비용인 것은 분명하다. 그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충당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경관의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 일 것이다. 그래서 최이는 별도의 도감을 설치하여 조판 작업을 신속히 완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이가 별도로 세운 도감이 곧 ‘분사도감’으로 판단하여도 가능한 것인가.

분사도감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의논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장도감과 동시에 설치되었다는 주장과 권말에 분사도감에서 판각된 경관이 처음으로 산출된 1243년에 설치되었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그런데 시기별 조판분량을 분석해 보니 과연 1243년부터 1244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2년 동안 조판한 불경을 합산해 보니 3천권이 넘는 분량이다. 고려대장경의 전체

26) 『高麗史』卷129 列傳 卷42 <崔忠獻>. “別立都監, 傾納私財, 彫板幾半, 福利邦家, 功業難忘.”

분량이 대략 6,500권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놀랍게도 최이의 사재로 경관의 절반을 판각했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2년 동안 분사도감에서 판각한 불경은 5백 권에도 미달하고 있으며,<sup>27)</sup> 그 대부분의 분량인 2천5백 권 이상은 대장도감에서 조판한 불경에 해당된다. 이처럼 2년간 조판한 분량은 전체 경관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판을 주도한 주체는 오히려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조판의 주체를 밝히고 있는 조성기의 기재방식이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分司’로 기재된 경판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동일 불경이 본사와 분사에서 동시에 조판된 경우가 22종 666권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불경 상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지역에서 각판된 경판이라는 상징성으로 이해된다. 현재 경관의 조성기에서 특정지역이 명시된 경우는 『宗鏡錄』 권27의 조성기에 ‘南海’라는 지역이 유일하게 검출되고 있다.<sup>28)</sup>

결국 문제는 경판에 새겨진 조성기의 표시 시점과 방식으로 귀인된다.<sup>29)</sup> 본래 모든 경판의 권말 조성기에는 당연히 조성의 총괄 주체인 ‘대장도감’으로 일관되게 표기되어야 할 것인데, 극히 일부에 ‘분사대장도감’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일한 각수명이 양쪽 도감에서 새긴 경판에 모두 보인다는 근거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모두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

27) 朴相國, 『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 問題』(韓國佛敎文化史 上)(서울: 伽山李智冠 스님華甲紀念會, 1992), 989-993 <표 3·5> 참고.

28) 조성기에 ‘南海’라는 장소를 표기한 것은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수가 장난친 것이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전적 1』(대전: 문화재청, 2009), 326). 그렇다면 대장도감에 ‘분사’를 삽입한 것도 적극적 후원자인 최씨무인정권의 전형적 표출의 한 단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9) 경판 권말제 다음 행에 새겨진 ‘造成記’를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된 글에는 대부분 ‘刊記’라는 용어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말하면 ‘雕板記’ 또는 ‘板刻記’이다. 간기라는 표현은 사찰에서 불서를 개판하고 권말에 시주자와 실무자 등과 함께 그 간행사실을 밝히는 용어로는 적합하나, 대장경처럼 국가사업으로 일시에 대규모의 불경을 대장도감이란 특정 조성 기관에서 총괄 조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조성기에는 조성주체가 기재되어야 마땅하며, 판각지나 판각처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출판물은 인쇄처와 발행처로 구분되어 있는데, 출판의 주체는 인쇄처가 아닌 발행처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에서 영인한 <影印本 高麗大藏經>이 있는데, 만일 분량이 방대하여 여러 인쇄소로 분담하여 영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주체는 이 사업을 주관한 동국대학교인 것이다.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급기야 남쪽 끝 남해라는 작은 마을에서 고려대장경 전체가 조판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sup>30)</sup> 결국은 특정지역에서 조판된 경판에 한해 의도적으로 ‘分司’를 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이 무인 최씨정권과 연결된 진주목에 설치된 분사도감 산하의 일부 사원에서 판각한 경판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조성기에 보이는 연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일까. 당연히 조판이 완료된 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판하본을 만든 사람은 판각 완료 시점을 고려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는 조성기가 모든 불경의 권말에 다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일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조판이 완료된 시점에 분사에서 내려 준 형식에 의거하여 각권에 상징적으로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조판의 권말에 새겨진 조성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재방식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로 끝나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 방식으로 연호와 기구만 빼고 대체로 송판대장경의 조성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勅’자는 개행(改行)하여 반드시 첫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자는 본래 중국 황제만이 사용하는 글자인데, 송판대장경의 조성기에 보이는 ‘奉勅雕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sup>31)</sup> 한편 조성기에 ‘開板’으로 끝나는 경우는 대체로 사찰판에서 쓰이는 용어 개념이어서 재조본에 이러한 유형이 보이는 경우에는 정장과는 별도로 조판이 완료된 이후 판각된 사찰본에서 주로 보여진다. 그밖에 극히 일부 경판에는 발원자나 시주자 등 사찰본에서 보이는 잔재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30) 朴相國, 『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 問題』(韓國佛敎文化史 上)(서울: 伽山李智冠 스님華甲紀念會, 1992), 997-999.

31) 일부 연구자는 재조판에 새겨진 조성기에 심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판대장경에도 ‘大宋開寶○年○○歲奉勅雕造’라는 조성기가 있으며, 조선시대 간경도감판인 <眞實珠集>에도 ‘天順○年○○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재조본 조성기에 보이는 ‘奉勅雕造’는 본래 ‘奉教雕造’ 또는 ‘奉宣雕造’ 정도로 표기되어야 하나 대몽항쟁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조성되었던 까닭에 의도적으로 송판대장경에 쓰인 ‘勅’자를 그대로 고수한 면이 있다. 일본은 17세기에 대장경을 조성하면서 조성기에 국호를 ‘大日本國’으로 조조표시를 ‘奉勅雕造’로 하였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처럼 분사도감은 경관의 조성기만 보면 1243년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 양상을 보면 대장도감 설치와 동시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도감에서 주요 지방의 행정단위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그 지역에서 조판기능을 지닌 사원을 참여시켜 판각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3.2 수행 업무의 양상

고려시대에 방대한 고려대장경[再雕板]을 단기간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출판기능을 보유하고 경험이 있는 여러 사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분담 조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원은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자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사도감을 지방행정 단위인 부목에 설치하여 중앙의 대장도감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였다. 이처럼 분사도감은 대장도감 소속의 산하 기구로 고려시대 지방의 부목(府牧) 단위의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사도감의 책임자는 안찰사나 계수관이 주로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국가적 출판 사업으로 조성된 고려대장경을 조판하는데 있어서 중앙에 대장도감을 두고 지방의 주요 부목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산하에 출판기능을 보유한 사원을 선발하여 조판사업에 참여시켰다.

당시 분사도감이 설치된 지역은 대몽항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사찰은 지리산 남록의 단속사, 가야산의 해인사와 하거사, 조계산의 수선사, 만덕산의 백련사, 그리고 경주지역의 동천사와 굴현사 등으로 선종과 교종 사찰이 망라되어 있다.

시기별 조판 분량으로 보아 초기에는 조판 작업에 참여하는 사찰이 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이나, 중기로 가면서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다. 참여 사찰이 확정되면 분사도감에서는 중앙의 대장도감으로부터 할당받은 판각용 정서본을 다시

해당 사찰에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원에 소속된 각수들을 중심으로 조판이 진행되었으며, 조판 할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찰의 각수와 관아 소속의 민간 각수를 차출하여 산하 사찰에 추가 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하의 여러 사찰에서 판각이 완성된 경판이 일정량에 이르게 되면, 이를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는 인근의 선착장으로 모아서 강화도의 대장경판당으로 이운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그밖에도 경판의 조판이 완료된 이후에 본격적인 인경을 대비하기 위해 분사도감에서는 지방의 종이 산지를 중심으로 인경지를 공출하여 강화의 대장도감 산하의 선원사로 납품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4. 사원의 출판기능과 운영양상

### 4.1 사원의 출판기능

대장경판의 조판에는 분사도감 산하에 여러 사원이 참여하여 분담 조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사찰은 불경을 간행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대장경의 조판을 주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사찰 주변의 큰 산은 조판에 소용되는 목재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천연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찰은 신라시대 8세기 전반에 목판인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불경을 출판해왔기 때문에 수준 높은 목판인쇄기술을 보유한 출판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장경처럼 방대한 규모의 출판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조건이 잘 구비된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문제이다.

근래 필자는 불상의 복장에서 수습한 불교전적 가운데 신라하대에서 고려 초기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경을 다수 발굴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들 불경은 한국고대인쇄사를 새로 써야할 정도로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2)</sup>

32) 宋日基,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그것은 현재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알려져 있는 <無垢淨光經>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10세기 전후에 인쇄본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1세기에 초조대장경과 같은 방대한 불경을 간행할 만한 수준 높은 목판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들 목판본 불경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초조대장경 간행 이전에 이렇다 할 만한 실물 인쇄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 발행된 모든 전적인쇄사 관련 문헌에서 <무구정광경>은 중국의 낙양에서 간행된 것을 신라에서 가져가 석가탑에 안치했다는 이른바 ‘出版工程’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이들 개운사 화엄경에 간행기록이 없어 어느 사찰에서 개판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사찰에서 간행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신라하대로부터 사찰에서는 불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전적을 간행한 바 있어 일찍이 고도의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합한 이후 전국의 비보(裨補) 지역에 새로 여러 사찰을 세우고, 이곳에 선교의 명승들을 초치하여 법회를 주관케 하였으며, 한편으로 독경에 소용되는 불경을 ‘刻板印出’하여 충당케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sup>33)</sup> 이 내용은 태조 왕건의 재위기간인 고려 초기에 사찰에서 출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문헌사료이다.<sup>34)</sup> 이후 현종과 문종 때 현화사와 흥왕사에서 대규모의 출판 활동이 있었던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sup>35)</sup>

이와 같이 고려시대 사찰은 불경의 간행 및 보급의 중심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을 조성하는데 조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은 너무나

33) 李承休, 『動安居士集』 雜著 <看藏寺記>. “太祖神聖大王, 端以聖明, 勃興衰季, 係大旱雲霓之望, 彛義徂征救萬民塗炭之艱, 統業垂統, 乾坤繞漢, 士女蘇湯, 以舜帝在衡之明, 用(道)誥師相地之訓, 可州州, 可郡郡, 定厥民屋. 宜教教, 宜禪禪, 創諸佛寺, 選名僧而主法, 奉勝典以歸誠, 既刻鏤以印成, 亦金銀而筆授, 當水脉山鉗之津會, 使鎮而安, 豈邦國柝之苙綿, 於是乎在.”

34) 필자는 최근 그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불경을 소개하였다(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제48집, 2011. 6).

35) 이후로 재조본이 조성된 시기까지의 출판활동에서 대해서는 최연주가 정리한 글이 있어 참고가 된다(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2006)).

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찰은 주변의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목재가 풍부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자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사도감은 그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중앙의 대장도감의 정책을 수행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sup>36)</sup>

## 4.2 수행 업무의 양상

대장경 조성에 참여한 사찰은 분사도감으로부터 일정한 작업량을 할당받아야 수반되는 여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한 작업은 경판의 조판에 있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의 수집과 가공단계인 연판과정이 필요하며, 경판을 판각하는 각수 등 실무자의 선발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대장경판에 사용된 목재는 산벚나무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 사찰 주변에 흔히 자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판에 사용된 목재는 사찰 주변에서 벌목하여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가공된 상태에서 작업장으로 옮겨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판의 시기별 조판분량을 살펴보면, 작업 초기에는 판각에 소용되는 목재의 확보에 치중하였고, 중기이후로는 판각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초기에 판각된 경판은 일부 전문 각수에 의해 판각되었다가 중기이후에는 연판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을 각수로 재훈련시켜 대거 판각 작업에 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기에서 중기사이에는 「대장목록」에 입장되어 있는 불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판하였으며, 후기로 가면서 정장의 판각을 완료한 사찰에서는 외장 또는 부장으로 부르고 있는 불서와 문집 등을 개판하였다.<sup>37)</sup> 이른바

36)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부산: 세종출판사, 2009), 223. “조성공간의 소재지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자들은 대장도감 및 분사도감과 같은 두 공간에 만 위치한 것으로 이해하여 제한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일부연구자들은 13세기 전후 고려사회의 서적·경전의 조성형태와 새로운 자료 등을 분석·활용하여, 산청의 斷俗寺와 伽耶山의 海印寺·下鉅寺 및 東京의 東泉社(寺)·掘玄寺, 그리고 昇平郡의 修禪社 등과 같은 여러 사원들이 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으로 재편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보유판과 사찰(간)판에 해당되는 교종 및 선종관련 불교전적, 그리고 일부 개인문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사찰본과 문집의 경우는 권수제 아래에 함차 표시가 없으며, 판식 또한 중앙에 판심이 나타나는 선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목재 확보 과정에서 정장의 판각에 사용될 수 없어 축적된 판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찰 주변 산에서 채취한 모든 나무는 자연 아래 부분이 굵고 위 부분은 점차 가늘어진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고 정장용 경판의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부분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목재를 모두 폐기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보유판과 문집, 그리고 대장경 조성시기 및 그 이후로 개판된 사찰본은 정장 용도로 사용되고 남은 목재를 활용하여 판각된 것이다.<sup>37)</sup> 그래서 당시 사찰에서 판각이 주도되었던 작업 여건상 동일한 각수의 이름이 정장판과 사찰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들 목판은 판각이 완료된 이후로 강화의 대장경판당으로 보내지지 않고 계속 판각지에 남아 있는 것에 해당된다. 그 중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목판이 바로 합천 해인사의 동서 판고에 유존되고 있는 사찰판에 해당된다 하겠다.

---

37) 김윤곤 등 일부 연구자는 제조판 조성시기와 그 후로 판각된 보유판을 ‘外藏’으로 명칭하여 ‘正藏’과 함께 대장경의 범주로 보고자하였다. 이 문제는 오히려 11세기에 조성된 초조본과 교장본과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장본은 대각국사 의천의 주도로 편찬 간행된 장소문헌으로 일인 학자들에 의해 ‘續藏經’으로 명명된 이후 한 동안 사용되었다. 이런 장소문헌은 의천의 조성 이후로 조선후기까지도 간헐적으로 간행된 바 있는데, 문제는 꼭 ‘韓國撰述’이어야 하는 가 이다. 의천의 정신을 계승하고자한다면 굳이 찬술국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장소문헌은 모두 의천이 명명한 대로 ‘教藏’으로 부르면 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를 망라한 이른바 ‘續編教藏總錄’을 편찬하고자 하는 大願을 내면 좋을 것이다.

38) 필자는 이미 학계에 소개된 분사도감판 외에 선종에 관련된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1254년 판각)과 <禪宗唯心訣>(1251년 판각) 2종의 불서를 발굴하였는데, 모두 판식의 특징상 변란의 크기가 매우 작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약칭 <한산시>로 잘 알려져 있는 선종불서로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최근 경남지역에서도 1책이 발굴되었는데, 권말에 ‘甲寅歲分司大藏都監雕造’라는 판각기가 새겨져 있고 광곽의 크기가 17.0×23.0cm에 불과하다. 후자의 경우도 ‘辛亥歲分司大藏都監雕造’라는 판각기가 새겨져 있고, 광곽의 크기는 18.0×23.4cm로 크기가 매우 흡사한 아주 작은 소책자이다. 이에 비해 제조판의 전곽의 크기는 대략 匡高 22.3cm 길이 47-52cm로 2배 이상 길다.

이처럼 분사도감 산하의 사찰은 이미 인쇄기술 및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의 산에서 조판에 소용되는 목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지닌 기관이다. 따라서 대몽항쟁이라는 국난의 특수한 시기에 대장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별도의 조판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찰을 참여시켜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고려대장경의 조성과정

고려대장경의 조성은 대장도감의 총괄적 지휘 아래 지방에 분사도감을 설치하여 산하에 사원을 참여시켜 실제적인 판각을 진행하는 운영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조성 초기에는 불경의 교정 작업과 판각용 판하본의 준비, 그리고 경판에 소용되는 목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판 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중기 이후로 판재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여기에 투입되었던 인력의 일부를 각수로 재훈련시켜 판각에 참여케 하여 판각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한편 대장도감에서는 강화에 대장경판을 보존할 수 있는 판당을 건립하고 인근에 창건한 선원사로 하여금 관리와 인경을 준비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성기관의 운영 양상으로 기반으로 고려대장경의 조성과정을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5.1 조판 준비기(1233-1236)

고려 초기 현종에서 선종연간 무려 76년에 걸쳐 조성되었던 초조대장경이 1232년 몽고군의 방화로 하루아침 사이에 잿더미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233년에 고려 왕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이규보 등에게 대장경 복원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쓴 기고문에 근거하여 이미 왕실에서는 담당기구인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조성사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비단계는 실무차원에서 저본 대장경의 확보, 대장경 입장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대장목록」의 작성, 목록에 입장이 확정된 불경의 교정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성사업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참여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사업의 책임을 맡아 진행할 인사를 선정하였을 것인데, 아마 이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로 관료층에서는 이규보에게 대장도감의 별감직을 겸직토록 하고, 불교계에서는 오교도승통직에 오른 개태사의 수기법사를 초빙하여 목록작성과 교정의 임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이처럼 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린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본으로 삼을 대장경 전장과 새로 추가할 불경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비록 초조대장경판은 불타 없어졌으나, 그 경판에서 인출한 불경은 몇몇 사찰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피난 온 상하이어서 대장경의 완질을 확보하는 일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본용 불경은 고려에서 간행한 초조본과 사찰본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나, 수기법사의 「교정별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미 중국에서 간행하여 고려에서 수입한 송판과 거란판 대장경 등도 상당량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다음으로 수기법사로 하여금 확보된 저본 대장경을 토대로 새로 조성할 대장경에 추가로 편입할 불경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초조본에 입장된 불경을 대상으로 새로 추가할 것과 제외시킬 불경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목록을 편성하여 조판에 대비케 하였다.<sup>40)</sup>

그리고 고려 고종연간 불과 16년 만에 완성된 재조본은 교감과 교정이 우수한 대장경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실로 이러한 평판을 입증할 만한 자료인 「교정별록」이 다른 대장경에는 없으나 오직 재조본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39) 최근 유부현에 의해 <再雕藏> 저본의 전반적인 검토가 수행되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초조장은 물론 여전히 개보장 및 개보장수정본, 거란본이 저본 경전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유부현, “高麗藏의 底本에 대한 一考,”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40) 김윤곤은 “수기의 「교정별록」과 「대장목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002), 61).

수 있다. 물론 6천권 이상으로 구성된 방대한 대장경 전체를 수기법사 혼자 모두 교정을 보았을 리는 없으나, 그는 전체적 교정 과정을 지휘하고 여러 스님이 교감한 내용을 종합 편찬하였다.

한편 교정이 끝난 불경은 경판의 판각을 위해 판하본(板下本)을 마련하였다. 판하본은 교감을 본 저본경에서 일부 오자만을 수정한 경우에는 저본경을 그대로 판하본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1)</sup> 이는 방대한 불경을 일일이 정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재조본의 자체(字體) 중 일부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서체에서 이탈된 특징을 보이는 불경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송판과 거판판 대장경을 새로 추가한 것을 저본경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이 끝나 판하본이 마련된 불경은 순차적으로 분사도감을 통해 지방의 참여 사원에 분배하여 조판을 착수하였다.

이상은 1237년에 최초의 경판이 산출되기 이전 단계에서 주로 대장도감에서 수기법사의 지휘로 진행하였을 저본경의 수집, 목록작성, 교정 작업, 판하본 준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은 교정 작업이나 판하본 작업 등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

## 5.2 경판 조판기(1237-1248)

대장도감의 주관으로 재조대장경의 경판이 조판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산출된 연도는 1237년이며, 최종적으로 재조본에 수록되어 있는 「대장목록」의 판각이 완료한 시기는 1248년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장경의 조판은 「대장목록」에 입장된 천자문 순서로 순차적으로 교정과 판하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분사도감에 배분하여 이를 다시 참여 사원에 분배함으로써 본격적인 조판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경전의 분량과 교정의 수준과 분량에 따라 판하본을 준비하는 순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권의 조판 완료 시점이 상이할

41)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125-126.

수 있다. 또한 설령 목록의 순차로 판하본이 마련되어 판각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판각의 정교도나 각수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시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인으로 조판시기가 반드시 목록의 순서와 일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경판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판하본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나, 동시에 이를 판각하기 위해서는 판재의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준비기를 통해 중앙의 대장도감에서는 교정이 완료되어 조판용 판하본을 준비하는 사이에 지방의 분사도감 산하의 조판에 참여한 사원에서는 어느 정도 경판의 판재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1237년부터 본격적인 조판이 착수되어 1248년에 이르러서 『대장목록』에 수록된 불경은 조판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 12년 동안에 조판된 경판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조판분량과 조판에 참여한 각수의 실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sup>42)</sup>

<표 1> 재조판의 연도별 조판분량 및 참여각수 현황

雕造年度	雕板分量		參與刻手		
	張數	점유율(%)	名數	비율	1인당 板刻量
1237(고종24)	2,957	2.00	202	4.1	14.6
1238(고종25)	12,607	8.54	421	8.5	29.9
1239(고종26)	6,411	4.34	211	4.3	30.4
1240(고종27)	7,241	4.90	171	3.4	42.3
1241(고종28)	7,047	4.77	137	2.8	51.4
1242(고종29)	8,964	6.07	172	3.5	52.1
1243(고종30)	31,837	21.57	1,218	24.6	26.1
1244(고종31)	39,613	26.83	1,597	32.2	24.8
1245(고종32)	16,603	11.25	567	11.4	29.3
1246(고종33)	10,636	7.20	132	2.7	80.6
1247(고종34)	2,944	1.99	74	1.5	39.8
1248(고종35)	761	0.52	55	1.1	13.8
합 계	147,621		4,957		평균 29.8장

42) 이 표는 최연주에 의해 작성된 것을 기본으로 필자가 일부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최연주는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각판량 조사를 권 단위가 아닌 장 단위로 조사하여 자료의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는 1권의 분량이 모두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崔然柱, 『高麗大藏經研究』(서울: 경인문화사, 2006), 143).

상기 표를 토대로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조판된 분량은 147,621장에 이르고 조판에 참여한 각수는 4,957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각수 1인당 연간 평균 30장 정도를 판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조판 초기의 연도별 경판 산출량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판 원년인 1237년(고종 24)의 조판량은 불경 2종 116권 2,957장에 불과하였으나, 다음 해인 1238년에는 42종 509권 12,607장으로 대폭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 조판에 참여한 각수가 1237년에 202명이며, 1238년에 42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년 동안에 판각량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참여 각수는 2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각수의 기량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 조판용 판재가 적절히 공급되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1243년과 1244년의 조판분량이다. 이 2년 동안의 조판량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조판에 참여한 각수는 2,815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참여각수의 57%가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투입된 각수는 연간 1인당 평균 25장을 판각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균 17%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때 투입된 각수는 새로 판각 훈련을 받고 투입된 신참각수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그 동안 사원에 소속되어 경판용 판재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부터 '分司'에서 조조하였다는 조성기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이는 최씨정권에서 조판비용을 부담하여 절반을 조판하였다는 기록과도 일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년 동안 분사도감으로 표시된 경판은 13,638장으로 조사되어 약 24%에 불과한데, 동일시기에 대장도감으로 표시된 경판은 무려 57,391장에 이르고 있다. 더욱 전체 경판에서 분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에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분사가 1,247명이며, 본사가 1,568명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각수 1인당 연간 판각량으로 산출해보면, 분사가 평균 11장에 불과하며 본사는 평균 37장에 이르고 있어 각수의 기량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5년 이후로 조성기에 분사도 감으로 표시된 경판에 나타는 각수가 대장도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246년도의 1인당 각수의 연간 평균 각판량이 80장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 각판량 30장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다소 의문이 든다. 이 조사통계를 신뢰한다면, 결과적으로 최고의 각수만 선발하여 참여시켰거나, 아니면 판각시간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조판분량을 많이 배정받았다면, 이미 전 전년도부터 많은 각수들이 양성되었는데, 왜 이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수의 능력을 파악해보면, 전반기인 1243년 이전에는 각판에 참여하는 각수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1인당 각판량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수의 판각 기량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은 1237년 처음으로 대장경판이 산출되기 시작하여 1248년에 『대장목록』의 조판이 완료되기까지의 이른바 정장의 조판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1243년-1244년의 2년 동안 조판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5.3 경판 이운기(1245-1248)

『고려사』에 고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문밖에 있는 대장경판당에 행차하여 분향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강화도에 경판을 보존하는 판당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판당이란 지금의 해인사 판전과 같이 단순히 경판의 보존을 위한 판고(板庫)이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철저히 경판의 보존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숙직 관리인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대장도감의 실무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곳을 상시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43)</sup>

43)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141.

그리고 고종이 판당에 행차하여 일종의 고유식을 행한 것은 대장경의 인경도 무사히 끝나고 진정한 불교의 범보라 할 수 있는 대장경판이 영원토록 훼손되지 말기를 기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경판 수호의식이었다. 따라서 이곳 판당에는 경판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경판은 언제 이곳 판당으로 이운되었는지가 문제이다. 현재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경판의 조판은 분사도감 관할 아래 남해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사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 또한 앞장에서 지방의 분사도감 산하에 그 지역의 사원이 조판 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집권자 최씨정권의 원찰로만 이해되고 있는 선원사가 1245년에 완성되어 이듬해에 성대한 낙성회가 있었다. 종래 연구에서 선원사의 창건 배경을 주로 최이의 원찰로써 파악하고 있으나, 당시 대장경판당이 서문 밖의 선원사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오히려 선원사는 판당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분사도감 산하의 참여 사찰에서는 경판의 판각에 치중하였고, 대장경의 인출은 경판이 보존되어 있던 선원사에서 주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에 대장경판당과 선원사가 설치되었던 무렵에 경판의 조판사업도 정점을 지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시점이었다. 조판에 참여했던 사찰마다 판각된 경판이 상당량에 도달하여 보존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강화도선원사에 판당이 설치되자 분사도감에서는 그 동안 지방의 사찰에서 판각한 경판을 강화도 판전으로 이운하기 위해 수로와 해로로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집결시켜 운반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지방의 분사도감 산하의 여러 사찰에서 이운해 온 경판은 강화도의 판당에 보존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당의 존재가 고려사와 조선실록의 正史에서 확인되고 있고 기타 고려인의 문집 등에도 산견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고종이 행차하여 의식을 거행한 사실도 보이고 있다. 고종이 판당으로 행차한 1251년 이전에 이미 모든 경판이 이운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경판의 판당 이운

시기를 선원사가 창건된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내 강화판당에 보존된 경관이 최종적으로 『대장목록』의 입장 순서에 따라 판가에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곧이어 대장경의 인경 작업이 착수되었다.

#### 5.4 불경 인출기(1249-1251)

경관이 지방의 조판처로부터 강화도의 대장경판당으로 이운되어 판고 내의 판가에 입장순서로 배가되었다. 그런데 경관을 보존할 목적으로 세워진 판당의 설치시기와 위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우선 위치는 대체로 선원사 내 또는 그 인근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려사』에는 판당의 위치를 서문 밖으로 기술하고 있어 막연하게나마 강화성 서쪽 문 밖 인근의 어느 곳에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당은 대장도감이 위치한 궁궐 안에 설치되지 않은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판당은 선원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선원사의 위치가 밝혀진다면 판당이 설치된 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원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사적 제259호로 지정된 ‘선원면 지산리’에서 충렬사 일대의 ‘선원면 선행리’로 보아야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4)</sup> 그리고 강화에 판당이 세워진 시기는 대장도감이 설치된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선원사와의 관계로 보아 절의 창건 시기인 1245년 이전이 타당할 듯하다. 대장도감은 기구상에 편제만 있는 조직이지만 이와는 달리 판당은 방대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판고를 실제로 건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당은 선원사의 창건 이전에 사찰 내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한편 대장경의 인경은 판당이 설치된 선원사에서 주도하였을 것이다. 인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지와 먹물, 그리고 인출 작업에 수반되는 말총 등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경관이 이운되던 시기에 지방의 여러 산지에서 인

44) 채상식, “江華 禪源寺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4(2009), 135-170.

경에 필요한 종이나 먹 등이 분사도감의 주도로 공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경 준비가 완료되자 실제로 이 작업을 주관할 인쇄 인력이 각 사원으로부터 차출되어 선원사로 집결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인경에 필요한 인력과 재료 등 일련의 준비가 완료되자 판당으로부터 배가순서로 경판을 인경할 장소로 운반하여 본격적으로 작업에 돌입하였다. 인경작업은 모든 경판이 조판되어 강화도 판당으로 이운이 완료된 1249년부터 고종이 판당에 행차한 1251년 사이에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장경 조성 작업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수행되었던 주요업무와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구분	소재지	기구	주요업무	작업내용
조판준비기 (1233-36)	중앙(江都)	대장도감	조성기구 조직 조성업무 총괄 분사도감 관장	- 대장목록 편찬 - 불경 원문교정 - 관하본 마련
		선원사	창건 준비	- 공간 조성
	지방(府牧)	분사도감	참여사원 선정 판각작업 분배	- 사원관리 - 관하본 분배
		사원	판재 준비 판각 작업 각수 양성	- 인력 관리 - 판재 별채 - 목재 연판
경판조판기 (1237-48)	중앙(江都)	대장도감	조성업무 총괄 분사도감 관장	- 불경 원문교정 - 관하본 마련
		선원사 (대장경판당)	판당 건립 사원 건축	- 경판 이운 - 경판 배가
	지방(府牧)	분사도감	참여사원 선정 판각작업 분배 경판이운 주관	- 사원관리 - 관하본 분배 - 추가인력 선발
		사원	판재 준비 판각 작업 각수 양성	- 인력 관리 - 판재 별채 - 목재 연판 - 경판 판각 - 경판 관리

구분	소재지	기구	주요업무	작업내용
경관이운기 (1245-48)	중앙(江都)	대장도감	조성업무 총괄 분사도감 관장	
		선원사 (대장경판당)	판당 수호 경관 인경	- 경관 이운 - 경관 배가 - 종이 수납
	지방(府牧)	분사도감	판각작업 분배 경관이운 주관	- 사원관리
		사원	판각 작업 보유관 판각	- 목재 연판 - 추가 판각
불경인출기 (1249-51)	중앙(江都)	대장도감	조성업무 총괄	
		선원사 (대장경판당)	판당 수호 경관 인경	- 인경 주관 - 장황 작업
	지방(府牧)	분사도감	업무종료	
		사원	보유관 판각	- 목재 연판 - 추가 판각

위의 <표 2>와 같이 고려재조대장경의 전체 조성과정을 준비기로부터 인경기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조성에 참여한 기구나 기관의 주요 업무와 실제 수행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모든 공정이 4단계로 일관되게 구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성 작업의 성격상 판하본 및 판재 작업 등은 일정기간 동안 병행되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대체로 해당 시기 동안에 수행된 조성 작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바란다.

## 6. 결 론

고려 고종연간에 대장도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려대장경은 불과 12년이란 최단기간에 조판되었으나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은 매우 성공적으로 완성된 국가적 출판사업이었다. 이처럼 국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획으로부터 실무적

수행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거국적 출판 사업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층에서는 이규보 등 고위 신료가 참여하여 정책과 운영을 주관하고, 불교계에서는 5교의 고위 승통직을 맡은 수기법사 등이 참여하여 불경의 목록, 교정, 조판, 인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실무적 과정을 전담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조직 상에 대장도감이란 총괄 기구를 설치하여 고위 실권자를 배치하고, 지방의 행정단위인 부목에 분사도감을 두어 지방의 책임자가 이를 겸임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교계의 축적된 출판 경험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종파를 초월하여 중요 사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조판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종래 연구에서 각권의 권말에 새겨져 있는 ‘造成記’를 ‘刊記’로 이해함으로써 조성기에 나타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을 ‘板刻處’로 인식하여 많은 오해를 낳고 말았다. 대장경은 사찰에서 간행한 사찰본과는 그 규모나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사찰본에는 권말에 시주질과 함께 간기가 보이고 있어 대체로 간기에 보이는 사찰이 판각처인 동시에 발행처인 경우가 일반적 관례이다. 그러나 고려 대장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권말에 새겨져 있는 조성기를 사찰본과 같이 간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고려대장경의 조성은 대장도감의 지휘 아래 지방의 분사도감에서 판각 기능을 보유하고 있던 여러 사원의 협력을 받아 분담 조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대장경의 조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조판준비기·경판조판기·경판이운기·불경인출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각 단계 마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1251년에 전체 공정을 불과 16년 만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장경 조성 당시 고려정부는 임시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와는 조성과정의 여러 측면에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강화의 고려 정부안에는 비록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총괄 기구인 대장도감이 상당기간 동안 존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장도감의 산하에 부속 사찰로 선원사를 창건하여 지방의 여러 사찰에서 판각한 경판을 강화판당으로 이운해 와 경판의 체계적 관리와 수호를 맡게 하였

으며, 한편으로 경관의 이운이 완료된 이후 불경의 인출을 주관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은 강화경에는 전체 조성과정을 총괄하는 대장도감과 경관을 보존하는 판당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분사도감을 두어 산하의 참여사원에 업무량을 분배하고 관장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 <참고문헌>

### <資料集>

강화군.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 2011.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논문집』.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

고려대장경연구회.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1-4. 고려대장경연구회, 불기2533년-. 『中華大藏經』. 臺北: 中華書局, 1984.

『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1957-1976.

山西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磯部彰 編. 『台東區立書道博物館 所藏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特定領域研究<東亞細亞出版文化研究>總括班. 東京: 二玄社, 2005.

### <單行本>

새얼문화재단.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인천: 새얼문화재단, 2001.

金光植. 『高麗武人政權과 佛教界』. 민족사, 1995.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1.

金潤坤. 『高麗大藏經彫成名錄集』. 대구: 영남대출판부, 2001.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彫成機構와 刻手의 性分.”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 卷上.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1990).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文炯萬. 『高麗諸司都監各色研究』. 제일문화사, 1986.
- 文暻鉉.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佛敎와 歷史>.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1991).
- 朴相國. “大藏都監의 板刻性格과 禪源寺 問題.” <韓國佛敎文化史> 상.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1992).
- 朴相國. <대장도감과 고려대장경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박상진. 『다시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서울: 운송신문사, 1999.
- 宿白. 『唐宋時期的雕板印刷』. 北京: 文物出版社, 1999.
- 安啓賢. <大藏經의 雕板>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75.
- 오윤희. 『대장경』. 서울: 불광출판사, 2011.
- 李炳熙.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경인문화사, 2008.
- 張愛順 외.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2.
- 田中塊堂. 『日本古寫經現存目錄』. 京都: 思文閣, 1973.
- 鄭駝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 池內宏. 『滿鮮史研究』. 中世2, 1937.
- 진현중.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들녘, 1998.
-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일조각, 1991.
-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千惠鳳. <대장경의 조판>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 崔然柱. “高麗大藏經의 彫成과 刻成人研究.”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04.
-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2006.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부산: 세종출판사, 2009.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事業의 주도층>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金潤坤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學會, 2001.
- 坪井俊映. 『佛教書誌學』. 京都: 佛教大學, 1967.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 黃壽永·文明大. <高麗禪源寺址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 1책. 東國大學校 江華島學術調查團, 1977.
-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 許興植. 『韓國中世佛教史研究』. 일조각, 1994.

<論文>

- 강순애.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994).
- 金聖洙. “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연구』 32집(2010).
- 金聖洙.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27(2004).
- 金潤坤. “羅麗郡縣民 收取體系와 結負制度.”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民族文化論叢』 9(1988).
- 金甲周. “高麗 大藏都監 研究.” 영취불교문화원. 『不聞聞』 창간호(1990).
-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제14집(1979).
- 文明大. “大藏都監禪源寺址의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韓國學報』 3(1976).
- 閔永珪. “一然重編 曹洞五位 重印序.” 『學林』 6(1984).
- 文炯萬. “高麗特殊官府研究.” 『釜山史學』 9(1985).
- 朴相國. “해인사 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韓國學報』 33(1983).
- 배상현. “고려시기 晉州牧 지역의 寺院과 佛典의 조성.” 『大丘史學』 72(2003).
- 常盤大定.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1913). 28-312.
- 서수생. “八萬大藏經板 研究.” 『韓國學報』 19(1974).
- 松永知海. <高麗版과 黃檗版의 大藏經 對校> 『高麗大藏經의 研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6.

- 宋日基.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書誌學研究』 제42집(2009).
- 宋日基.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제1집(1986).
- 오용섭. “八萬大藏經의 造成과 江華.” 『인천학연구』 제1집(2004).
- 俞瑩淑. “崔氏武人政權과 曹溪宗.” 『白山學報』 33(1986).
-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 柳富鉉. “高麗經의 底本에 대한 一考.”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 정병삼.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제27집(2010).
-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下).” 『東洋學報』 14-1(1924).
-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に關する 一二の補正.” 『東洋學報』 14-4(1924).
- 崔然柱.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인과 도감의 운영형태.” 『역사와 경계』 57(2005).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邊界線 소재 인명의 관각사업 참여형태.” 『한국중세사연구』 2(1995).
- 崔永好.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論叢』 43집(2009).
- 崔永好.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石堂論叢』 25(1997).
- 崔永好. “13세기 중엽 경주지역 分司東京大藏都監의 설치와 운영형태.”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新羅文化』 27(2006).
- 蔡尙植. “江華 禪源寺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4(2009).
- 妻木直良. “再び 高麗大藏經に 就て.” 『新佛教』 11-6(1910).
- 千惠鳳. “고려초기 간행의 寶篋印陁羅尼經.” 중앙대 도서관학과. 『圖書館學報』 第2輯(1973).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대동문화연구』 11(1976).

河瀬幸夫. “日本 忍澁의 大藏經 對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5.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內의 管理組織과 所屬僧의 構成.” 『한국중세사연구』 2 (1995).

許興植. “高麗高宗官版大藏經의 雕成經緯와 思想性.” 『歷史教育論集』 13·14 합(1990).

황인규. “고려 후기 禪源社의 創建과 禪僧들.” 『慶州史學』 제21집(1990).